 <b>국토교통부</b>	<h1>보도자료</h1>		<small>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</small> <b>보다나은 정부</b>
	<b>배포일시</b>	2020. 2. 27(목) 총 2매(본문 2매, 별첨0매)	
<b>담당 부서</b>	항공정책과	<b>담당자</b>	· 과장 김기대, 서기관 권미정, 사무관 정재웅 · ☎ (044) 201-4204, 4181, 4189
<b>보도일시</b>		배포 즉시 보도가능합니다.	

## ‘코로나19 대응 긴급 항공상황반(TF)’ 운영 입국제한조치에 따른 항공산업 영향 최소화 및 정부차원 대응 추진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코로나19 관련, 한국발 항공노선 여객에 대한 각국의 입국제한조치가 확대되는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긴급 항공상황반(이하 TF)을 2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.

○ 2월 27일 현재, 코로나19 확산 관련 이스라엘 등 19개국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, 대만 등 13개국은 입국절차 강화 등 입국제한조치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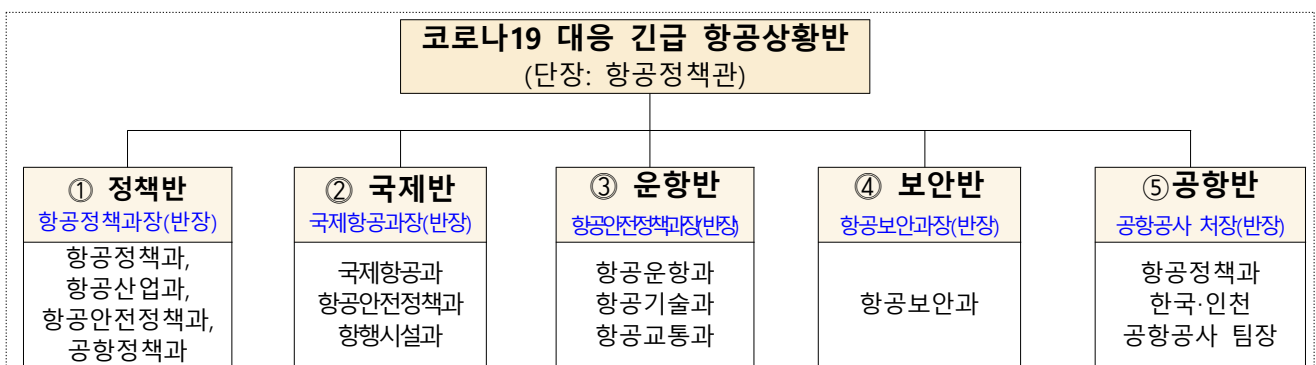
\* 美, 호주 등 14개국 여행경보 상향, 일본은 14일내 대구·청도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(2.27)

【 외국정부 조치사항(2.27, 오전 10시 기준, 외교부) 】

구분	입국금지	입국절차 강화	여행경보 상향	감염병 경보	안전공지
국가·지역(수)	19	13	14	3	8

□ 이에,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항공정책관을 단장으로 정책반, 국제반, 운항반, 보안반, 공항반으로 구성된 긴급 항공상황반을 구성하였다.

### 《 ‘코로나19 대응 긴급 항공상황반’ 구성안 》



- TF는 항공노선 관련 국제적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외교채널·항공당국 등을 활용하여 적극 대응하는 한편,
- 국제항공 네트워크 및 우리 항공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부차원의 대응방안을 검토·추진할 예정이다.

【 코로나19 영향 권역별 여객실적(전년 동기대비) (단위 : 명, %) 】

구분	일본	중국	동남아	기타아시아	미주	유럽	대양주	기타	합계
'19.12	1,160,695 △39.0	1,523,924 16.4	2,591,255 17.6	935,801 6.1	478,863 11.8	445,775 6.6	380,115 35.4	84,165 25.2	7,600,593 1.5
'20.1	1,192,070 △40.7	1,540,037 11.9	2,945,000 23.8	703,107 △23.7	497,168 9.8	494,293 4.3	410,264 26.0	99,568 18.7	7,881,507 △1.8
'20.2 1~3주	663,114 △51.5	229,346 △77.1	1,081,359 △33.8	269,381 △56.6	446,701 △3.3	266,315 △7.6	59,496 △1.1	87,768 4.6	3,103,480 △43.7

- 국토교통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“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기존의 중국·일본 등 중화권 위주에서 최근 미주·중동·유럽까지 항공여객 감소가 증가하는 추세”라며,
- “긴급 항공상황반 운영을 통해 국제적 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국민의 불편 및 항공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다하겠다.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권미정 서기관(☎ 044-201-418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